

<5.27신흥민주화운동 기념 제4회 글쓰기 축제>

智賞(최우수상) 3학년 9반 황*현 (시)

II

-밖에 갇힌 자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팬스레 우리 밖에 있었던 나는 외부에 갇히기 시작했고
<<나의 [우리]는 어디 있소?>>
시끄러울 정도의 정적이 내 귀를 왕왕 맴돌았다
그러다가 일순간
-기침소리-

들려왔다
나는 소리를 향해 아무런 이성 없이 달려갔다
그러곤 [우리]를 두드리며
<<여보- 그 속은 행복하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아마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가르침의 소리
아마도 그것은 가르침의 소리
아마도 그것은, 기침의 역(逆)소리
나는 차가운 울타리 앞에 앉았다
그러곤 안을 향해 귀를 대었다
훗날 다시 들려올 소리를 위해
침묵을 시끄럽다 외치는 우리의 기침을 위해

쿠키 영상

-재생(replay)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웠다
나의 업(業)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는 듯하다
눈만 겨우 뜯 채로 간호사의 외침을 보았다
소리가 번져 두 눈이 시리다

영화 같은 평범한 인생을 돌아보았다
영화가 끝난 후 불이 다시 켜질 때에는
눈이 아파 멍하니 앉아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 시야의 일렁임도 회복되듯이
돌아가겠지. 각자의 집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행복했던 사람
슬퍼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인가 마음이 걸걸해 기침을 하고 싶건마는
‘아서라, 이만하면 다 되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내 등을 두드린다

우리들은 각자의 영화관을 빠져나와 별이 되어간다
그리곤 현재에 색을 불어 넣는다
하늘은 무슨 색일까
자몽색이 아름다웠던
그때의 따스한 하늘
아직도 기억하는
잠시도 눈을
돌리지
못한
나
다시, 재생

•

-환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공허

하지만,

그는 끝내 차가운 묘비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러곤, 자몽빛 하늘을 쏘았다

그러곤, 별을 보곤 눈을 감았다

-벗이여, 현재 나는 행복하오?

울타리를 부순 그는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태(態)이다.

-나는 어떡할까 싶소

하지만,

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되뇌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신문에는 그 날의 {상처, 영광, 민주}에 대해 지껄이고 있었다

슬그머니 나타난 무(無)의 공백이 찢을 수도 없이 허무했다

사실, 그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릴 것이며 박수를 칠 것이다

그를 환호하며 영웅이라 지칭할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아준 초인(超人)

진정한 자유를 위해 소리친 빛

외침은 언제부턴가 가르침이 되었다

결국, 그의 공백은 하늘이 되어 아래아가 되어

아무도 눈치 챌 수 없었다.

하지만,

묘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또한 공허함의 정적이 그를 시끄러울 정도로 휘감았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별이 될 수 있다면....

자몽빛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되뇌었다

사회적 색맹

-부정적 현실/저항

무채색자동차

차가운아스팔트

깜빡이는신호등

그러나어디에도색(色)은존재하지않았소

-나는이것을아노미라하겠소-

무표정의사람들은전부다른벡터값을가지고있소

현실의압박에휘둘러더이상웃지도못하고제갈길가오

13인의아해가현실이무서워질주하오

아이들은서로를믿지못해무섭다골목길을냅다달려가오

회색먼지(홍진의紅조차더이상존재하지않소)는우리들의폐속으로들어가서서히

우리들의사랑을침식해가오

(기침소리)

기침을하시오

(기침소리)

기침을하시오

우리들의눈은다채로움을보기위해존재하오

모두는뇌내망상을지우기위해헛노력하오

-사실이것또한모두가알고있는사실이오-

우리들의스펙트럼은색이있소

결국우리는무채색안경을쓰인것이오

]自由-民權-繼承者[

-5월 27일. 신흥

헬리콥터 소리
돌을 탄압하는 탱크의 타이어소리
신경질전
아픈 기억
너무 많은 이미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외침

우리는 국기를 들고 국가를 외친다
쌍곡선을 그리며 미래를 그린다
내부에서 빙빙 돌며 외치는 것은
외부로 뻗어나갈 가속도를 높이고 있음이라
(나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새벽녘이요
우리는 자유민권의 외침을 계승하였으니
새벽녘 동이 틀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리)
끝없는 기침은 곧 하나의 소리가 되어
비좁은 운동장이 대지를 울리는 스피커가 되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곡선의 형(形)이 되리니

우리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치며
사랑을 외치며
기침을 하며
그들을 기리며
밖에 갇힌 자유를 풀어 주었다.

자몽빛 하늘에 떠있는 별이
우리들의 꿈이기를
그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이
우리들의 자유가 살아 숨쉬기를